

장성군, 지역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힘 모은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 간담회... 김한중 군수 "우수 먹거리 수출 적극 지원"

장성군이 10일 지역 농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정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수출 실적을 보유한 지역 내 농식품 업체와 수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사례발표를 맡은 '네시피 F&B' 장현순 대표를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한 것이 해외 진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밝혀 청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골든힐' 유동열 과장의 농식품

수출 마케팅 전략 특강과 'JS글로벌농산 연구원' 이장섭 원장의 '아세안 농식품 한 상 네트워크 활용방안'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수출 과정의 애로사항과 대책 마련,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를 주재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군의 농식품 수출 역량을 결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면서 "장성의 우수 먹거리가 세계 무대에서 공인된 위치에 오르는 그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수출 물류비(포장재, 내



류윤임비 등) 지원과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가고 싶은 섬' 금당도에 캠핑장 조성한다!

4월 착공, 캠핑 데크 23면, 글램핑 4동 등 연말 완공 예정

남해안 최적의 트래킹 지역으로 손꼽히는 '가고 싶은 섬' 금당도에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캠핑장이 조성된다.

완도군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당면 차우리 1370-1번지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 중이다.

기본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지난 4월 착공했으며, 올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부지면적 16,033㎡에 캠핑 데크 23면과 글램핑

4동을 비롯해 샤워장, 취사장,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캠핑장이 운영되면 그동안 숙박 시설이 미비하여 체류형 관광의 한계에 부딪혔던 금당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섬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021년 금당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이후 생태 복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주민과 소통하는 '유난히 좋은 날' 행사 6월 재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10일, 곁면 남양·칠봉·흥복·신흥·상덕 5개 마을회관에서 '유난히 좋은 날'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난히 좋은 날'은 군수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당초 3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잠정 연기된 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6월 초 다시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폐비닐 수집장 CCTV 설치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보수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마을회관 주변 경관 정비 △가로등 설치 요청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군에서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여부를 개별 안내하고, 추진상황 점검과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모내기와 밭일 등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



늘처럼 '유난히 좋은 날'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화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기 운영회의 개최

의 △ 지역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 및 화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화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특화사업으로는 △ 2025년 기획 나눔문화

확산 지원사업 △ 저소득 청·장년 치아 시술 지원사업 △ 노인가구 및 청·장년 장애인 목욕기구 및 배변장 지원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창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위원회 복지공동체원의 통합 운영으로 협의체가 더욱 단단해진 만큼 지역사회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복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봉섭 공공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강진군, 6월 '먹깨비' 할인쿠폰 모르면 손해

평일 2천 원, 주말 5천 원 축제 맛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

강진군이 오는 16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 일요일까지 '공공 배달앱 먹깨비'로 주문 시 최대 5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6월 중 강진군에서 개최되는 '작천 코끼리 마늘꽃 3DAYS'와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를 기념해 진행된다. 이벤트 할인쿠폰은 이벤트 기간 중 먹깨비 앱을 통해 1만 5천 원 이상 주문결제 시 즉시 적용된다.

'작천 코끼리 마늘꽃 3DAYS' 사전 기간인 6월 16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목요일까지는 매일 선착순 200명이 2천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축제 기간인 6월 20일 금요일부터 6월 22일 일요일까지는 최대 5천 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제3회 강진 수국길 축제' 개최 전 6월 23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 목요일까지는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2천 원 할인쿠폰이, 축제 기간인 6월 27일 금요일부터 6월 29일 일요일까지는 최대 5천 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할인쿠폰 적용 방법은 '주문하기'에서 '할인 수단'을 선택한 후 '할인쿠폰 적용'을 누르면 된다.

한정 수량에 한해서 이벤트 기간 내내 1인당 매일 1회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 먹깨비 앱을



사용하면 낮은 수수료, 무료 가맹비 등 먹깨비를 통해 착한 소비 관장을 위한 '3번 주문 시 만원 쿠폰' 이벤트, 강진군에서 매주 토·일요일 사용할 수 있는 '주말 배달비 3천 원 할인 이벤트', 전라남도에서 진행되는 '먹깨비 첫 주문 할인 이벤트', '먹깨비 더블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먹깨비 앱 내 이벤트 할인쿠폰은 최대 3개까지 중복 사용이 가능해 강진군 공공 배달앱 먹깨비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타 지자체나 민간 배달앱에 비해 크다.

6월 9일 기준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수는 285개소, 누적 회원 수는 7,309명, 누적 주문 수는 285,712건, 누적 매출액은 74억 원으로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손경실 기자

진도군, 도서 지역 주민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 준공

진도군은 12일(목) 조도면 대마도에서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근례 군의회 의장, 김인정 도의원, 주민중군 의원,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고, 경과보고와 축사, 통수식 순으로 진행됐다.

대마도 식수 전용 저수지는 2022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약 2년 6개월 만에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해 수원지 20,000톤, 정수시설 1일 80톤, 배수 시설 80톤 규모로 조성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저수지를 통해 대

마도의 식수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 여러분께 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의 정수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조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나배도와 관사도, 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잇는 해저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간에 지나갈 것. 늘그림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한순간에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림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할 것 같고 싶은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훨씬 사람을 만드느라 애를 쓴다.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지만 의미 있는 문장은 어디서
 기념스레 생각해.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말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새삼스럽고 기뻐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마음을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풍환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늠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극단'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언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한 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더 언제나 우연치 않게.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